
I. 경영환경

- 2020년 2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가 수축하는 모습임
- 우리나라도 2019년 4/4분기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성장률이 둔화됨
 - 민간소비 및 건설수주 등 주요지표가 2020년 1/4분기 크게 하락함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5월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함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50bp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됨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국내주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거래는 축소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 1/4분기 13.3%를 기록하면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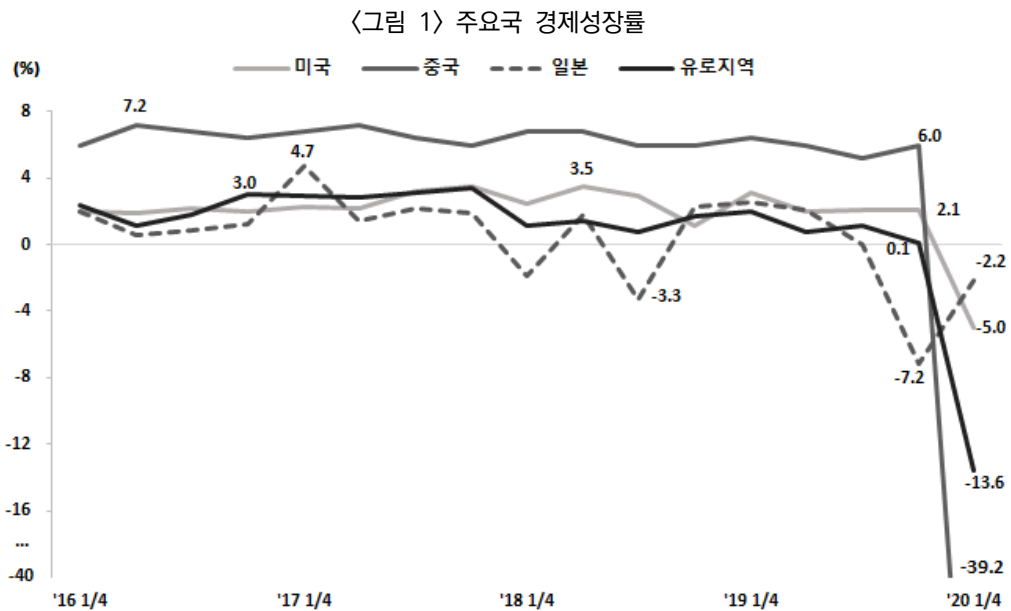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0년 1/4분기 주요국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2020년 1/4분기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5.0%, -13.6%를 기록하며 전분기에 비해 각각 7.1%p, 13.7%p 하락함.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5.0%p 상승하였으나 -2.2%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역성장함

○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39.2%로, 28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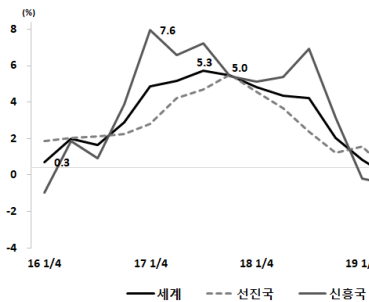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6); 중국 국가통계국(2020. 4); 일본 내각부(2020. 6); Eurostat(2020. 7)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2020년 1/4분기 각각 큰 폭으로 하락함

○ 2020년 1/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2%p 하락한 -4.2%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1.6%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4%p 하락한 -3.2%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¹⁾
- 2020년 1/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3.2%, -3.4%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각각 2.1%p, 5.0%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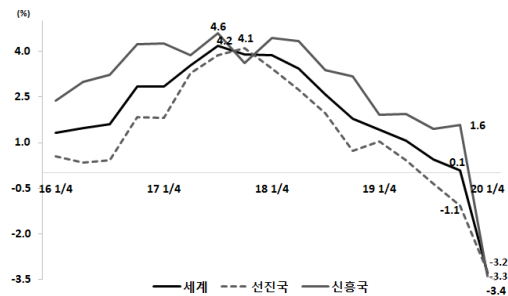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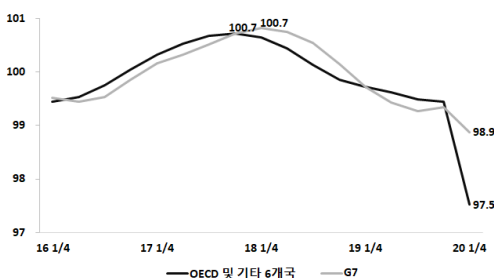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 세계 경기선행지수²⁾는 2020년 1/4분기 97.5를 기록하며 대폭 하락함

- 2020년 1/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8.9로 전분기보다 0.4 하락하였고,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은 각각 0.4, 0.9, 0.2 하락한 98.9, 98.6, 99.3을 기록함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5.5 하락한 92.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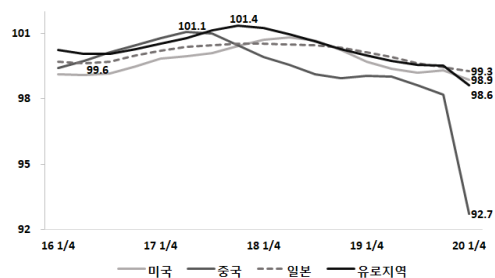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1) UNCTAD(2020. 5),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2)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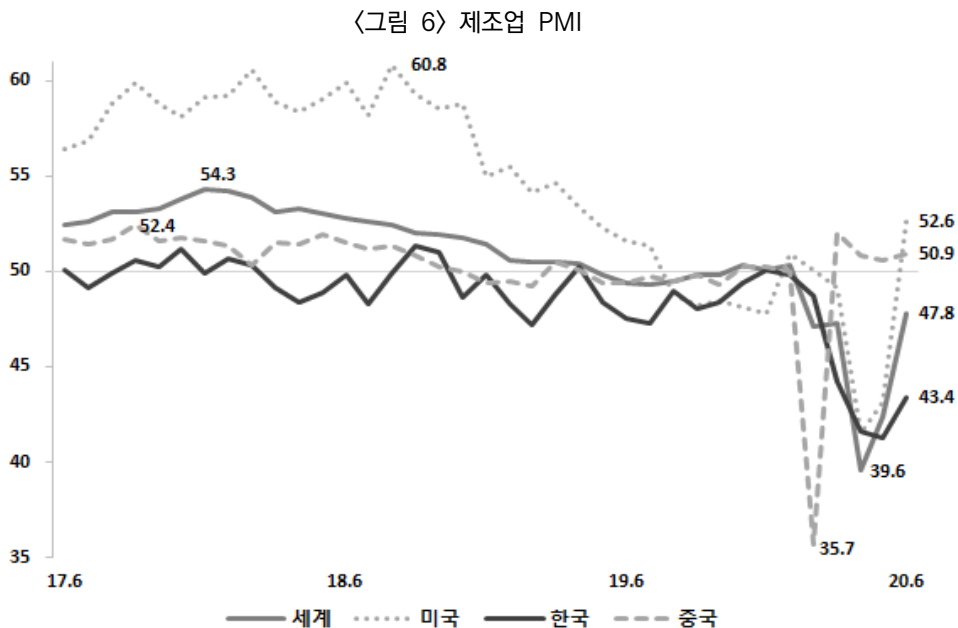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³⁾는 2020년 4월,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개월 연속 반등함

○ 2020년 4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7.7 하락한 39.6을 기록함

- 중국은 2020년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3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반등함

○ 2020년 6월 주요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미국(52.6), 중국(50.9), 한국(43.4)

모두 반등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임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2020년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고려하여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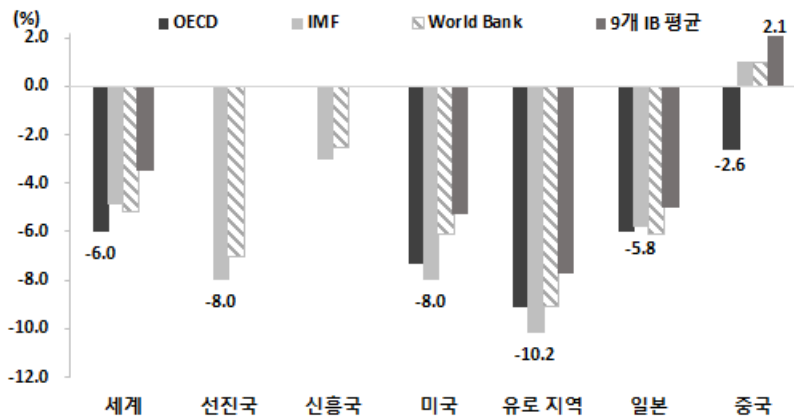
○ OECD는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주요국에서 재확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망하였으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7.6%로 전망함⁴⁾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4) OECD(2020. 6), *Economic Outlook*

-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주요국에서 재확산하지 않을 경우, OECD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0%임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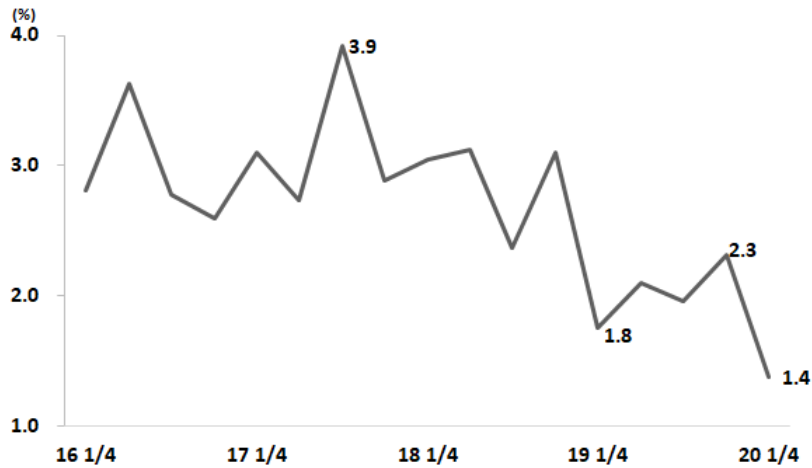
주: OECD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2020년 내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전망치임
 자료: IMF(2020. 6); OECD(2020. 6); World Bank(2020. 6); 9개 IB 평균(2020. 6)

나. 국내경제

- 2020년 1/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분기 대비 0.9%p 감소함

- 민간소비 및 건설수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2020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미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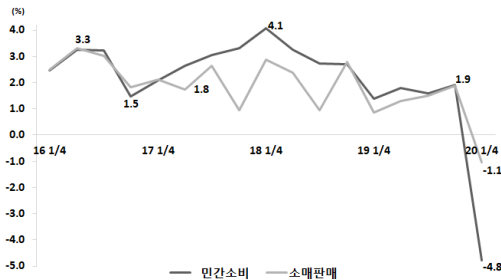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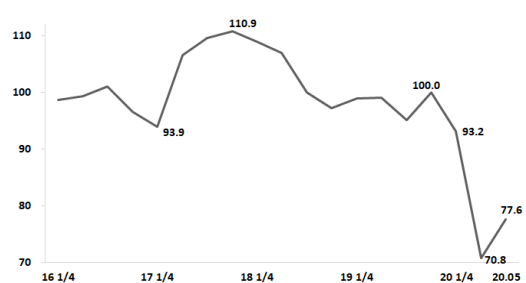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4.8%, -1.1%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보다 6.8 하락한 93.2를 기록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0년 4월 70.8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6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5월(77.6)에 반등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들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건설수주는 크게 하락함

○ 2020년 1/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6%p 상승한 4.2%를 기록하였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9.3%p 상승한 7.3%를 기록하였으며,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2.4%로 전분기보다 0.6%p 하락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3월 중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⁵⁾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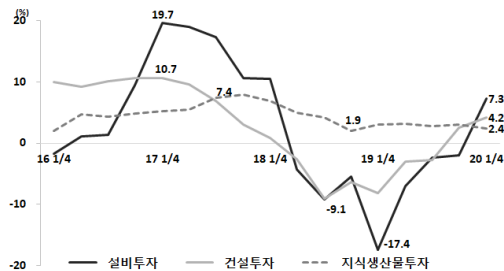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하여 16.6%를 기록하였고, 건설수주 증가율은 19.2%p 하락하여 1.7%를 기록함

- 기계수주 증가율은 1월과 2월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⁶⁾ 증가하면서 상승함

- 건설수주 증가율은 철도·궤도 등 토목부문 및 주택 등 건축부문⁷⁾ 모두 감소하여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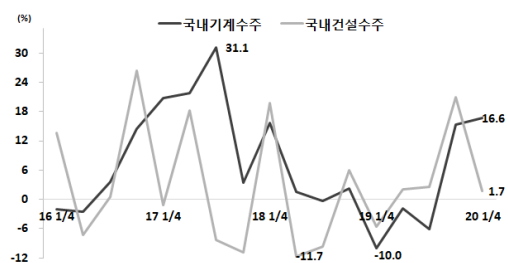
○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건설수주 증가율은 -35.6%로 감소하였으나 5월 24.3%로 반등하였고, 4월 전년 동월 대비 기계수주 증가율은 0.1% 상승하였으나 5월 -12.6%로 하락함⁸⁾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계수주, ¹⁾ 건설수주 ²⁾ 증가율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수입 증가율은 하락함

○ 2020년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9%p 상승하여 5.6%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0.3%p 하락하여 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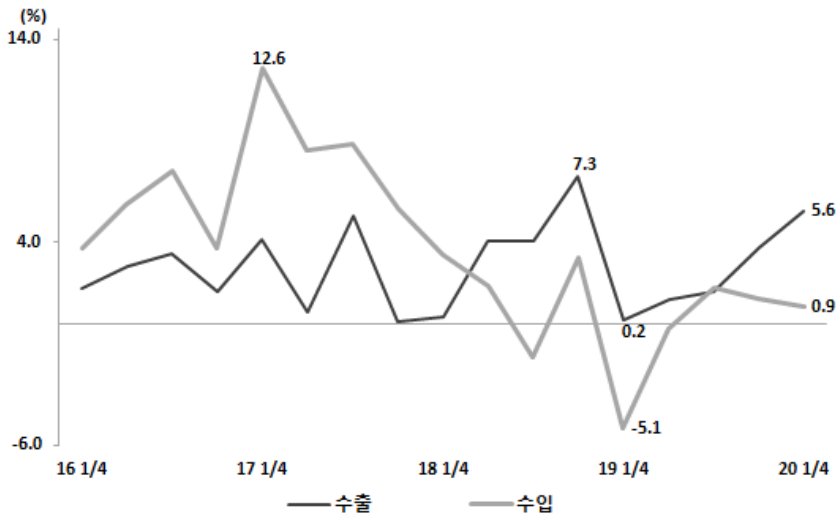
5)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6)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3),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7)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8)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선행지수⁹⁾ 순환변동치는 상승하고 경제성장률과 동행지수¹⁰⁾ 순환변동치는 하락하였으나, 2020년 4월과 5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하락함

○ 2020년 1/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3월 코스피, 경제심리지수 등이 감소하였으나 2월과 3월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하여¹¹⁾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2020년 1/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¹²⁾ 전분기보다 0.4 하락한 99.6을 기록함

- 2020년 4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1.3 하락한 97.3임

9)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가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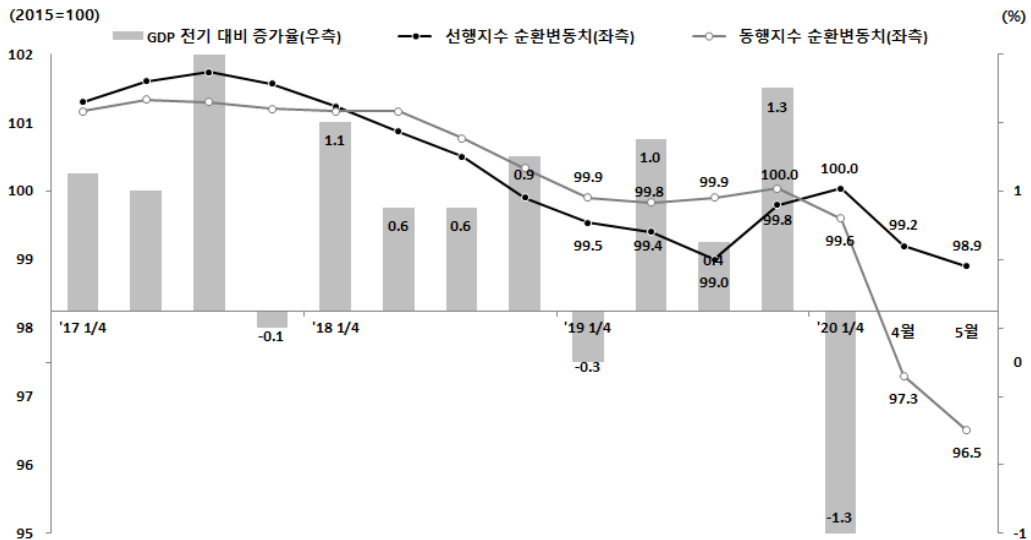
10)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1)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3),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12) 통계청 보도자료(2020. 3), “2020년 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4),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

- 2020년 4월과 5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2에서 98.9로 0.3 하락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3에서 96.5로 0.8 하락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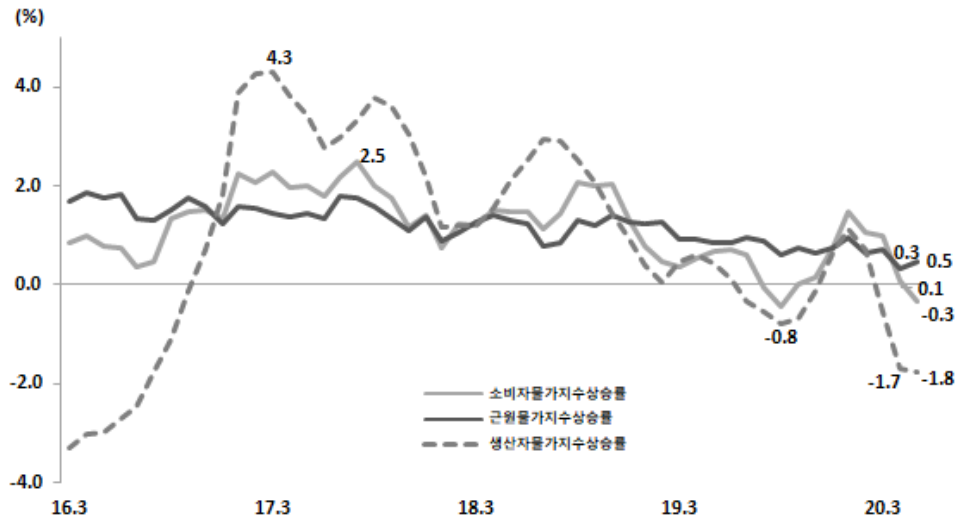
주: 2020년 1/4분기,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9월 역대 최저치인 -0.4%를 기록하고 반등하였으나,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임
- 2020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하여 -0.3%를 기록함
-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문화 관련 가격이 감소하면서¹³⁾ 개인서비스 부문이 크게 감소함¹⁴⁾

13) 전년 동월 대비('20. 4 → 5), 해외단체여행: -10.1% → -7.7%; 학교급식: -35.8% → -63.0%; 호텔숙박: -6.8% → -8.0%

14) 기획재정부(2020. 6), 「최근경제동향」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9년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입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⁵⁾의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저 -2.0%(UBS)에서 최고 0.3%(HSBC)로, 평균 -0.4%로 전망함

15) 9개 IB(Barclays, BoA, 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UBS, HSBC, UBS), 2020년 6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F) ¹⁾		2021(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7	2.0	-0.2	0.2	3.1	3.9
민간소비	2.8	1.9	-1.4	-2.0	4.3	5.3
설비투자	-1.6	-7.7	1.5	0.9	6.5	7.9
건설투자	-4.0	-3.1	-2.2	1.4	-0.8	2.4
지식생산물투자	1.9	2.7	2.2	2.7	3.4	4.1
상품수출	4.0	0.5	-2.1	-1.7	3.2	3.9
상품수입	1.9	-0.8	-0.2	-1.1	3.9	5.6
실업률	3.8	3.8	4.0	3.9	3.7	4.1
소비자물가	1.5	0.4	0.3	0.4	1.1	0.8
경상수지	764	600	570	594	550	409
상품수지	1,119	769	715	778	800	664
서비스 본원	-355	-169	-145	-184	-250	-255
이전소득수지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0.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5월 28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함¹⁶⁾

-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과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 0% 내외로 전망됨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하방압력이 증대되어 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는 0.5%로 지난 3월에 이어 5월 추가 인하로 총 0.75%p 인하되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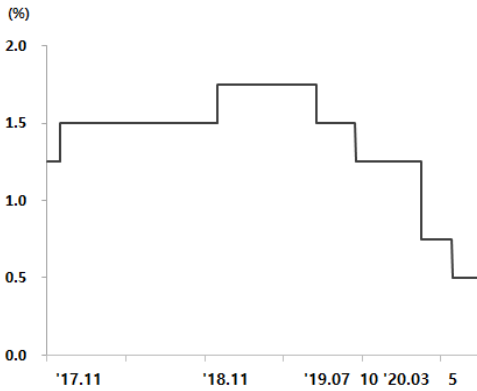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자산매입 및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¹⁷⁾

-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0.00~0.2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및 MBS 무제한 매입, 특수목적기구(SPV) 설립과 회사채 및 기업대출 지원제도 등을 도입함
- 유럽 중앙은행(ECB)은 자산매입 프로그램(APP) 규모를 확대(연 0.24조 → 0.36조)하고 총 1.35조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도입함
- 영국 중앙은행(BOE)은 단기금융 및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CP 및 회사채를 매입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기업·가계 대출지원프로그램(TFSME)을 신설함
- 일본 중앙은행(BOJ)은 자산매입 규모를 20조 엔 이상 확대하고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대출지원프로그램(55조 엔)을 도입함

16) 한국은행(2020. 5. 28),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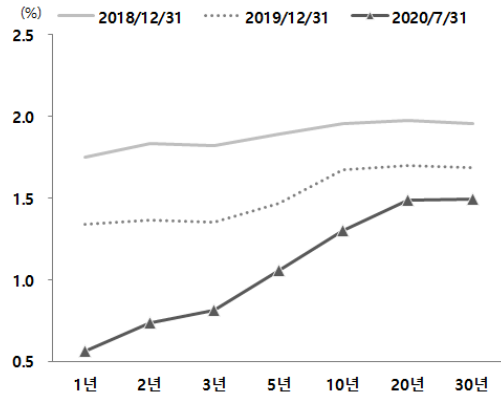
17) 한국은행(2020. 6. 1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 장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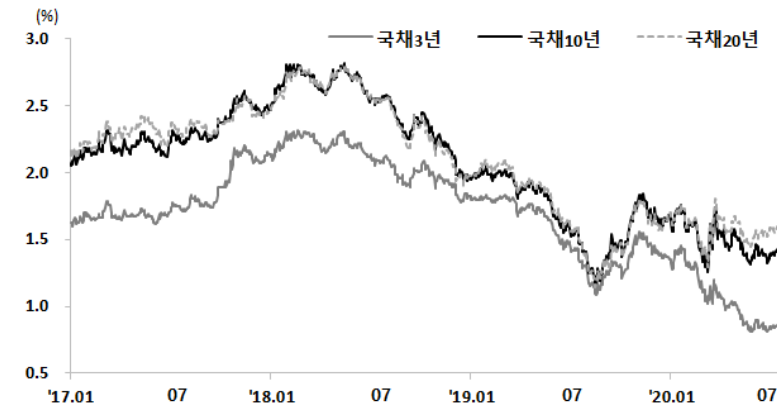
-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¹⁸⁾ 및 비우량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¹⁹⁾ 은행의 CD 발행 축소(전년 동기 대비 2.8조 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3년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미·중 갈등 재점화²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0.81%)을 기록함
- 한편, 10년물 국채 금리는 채권공급 확대 우려로 3년물 국채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임

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3. 24),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9)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을 여전채 A+ 등급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AA~BB 등급)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을 발표함

20)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코로나19 확산의 중국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함

〈그림 18〉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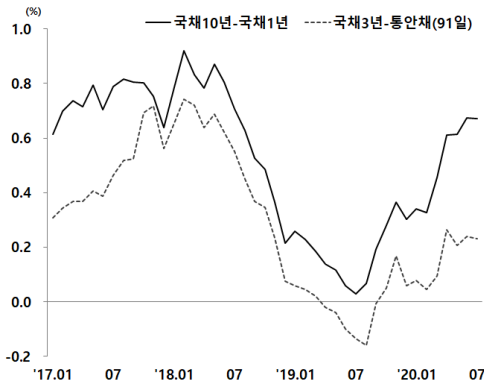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3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50bp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2월 말 22.7bp까지 축소되었던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인한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55.8bp까지 확대됨
-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됨
 - 정부는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지원, 코로나19 P-CBO 발행 등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함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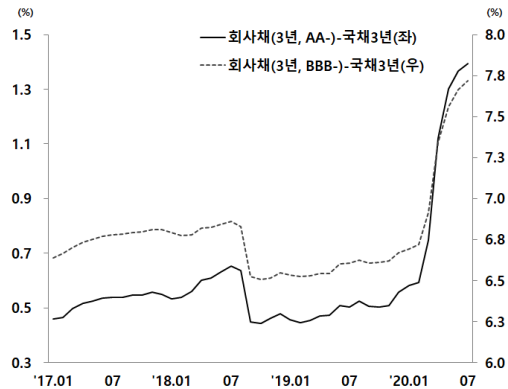
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7. 21), “자본시장 활성화와 실물경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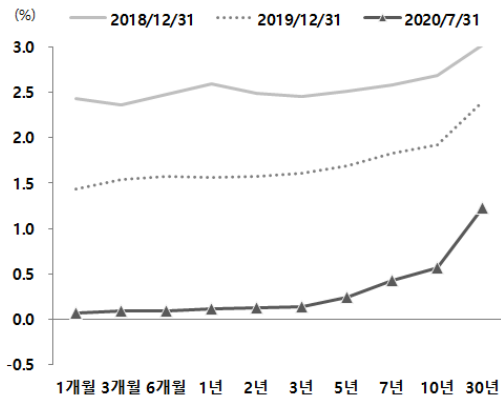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미·중 갈등 등의 하락요인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 상승요인이 혼재하여 0.6~0.8%(10년물)에서 보합세를 보임
 - 5월에는 연방기금 금리선물(FFR)의 내년 1월물 약정가격이 100.025p까지 상승하는 등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²²⁾ 2년물 국채금리는 0.14%까지 하락하여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한편, 6월에는 미 연준이 2022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EU의 경제회복기금 조정으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가 혼재하여 장기채권 금리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함
 - 한·미 장단기 스프레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국채발행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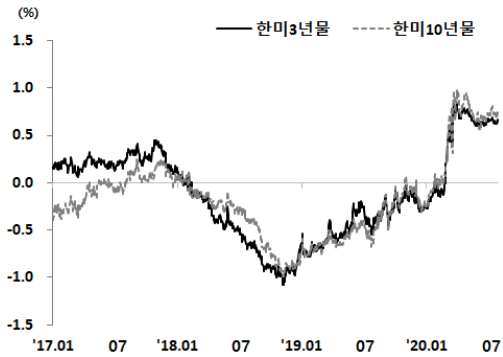
22) 통상 연방기금 금리선물 가격이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향후 1년 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3/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치에 비해 하향 조정함
- 2020년 3/4분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0.78%, 한국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36%, 0.78%로, 3년물을 제외하고 2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3분기 한국 3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 지난 3월 전망치인 1.26%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 금리			한국 국채(10년) 금리			한국 국채(3년) 금리		
'20. 3Q	4Q	'21. 1Q	'20. 3Q	4Q	'21. 1Q	'20. 3Q	4Q	'21. 1Q
0.78	0.87	0.96	1.36	1.34	1.45	0.78	0.82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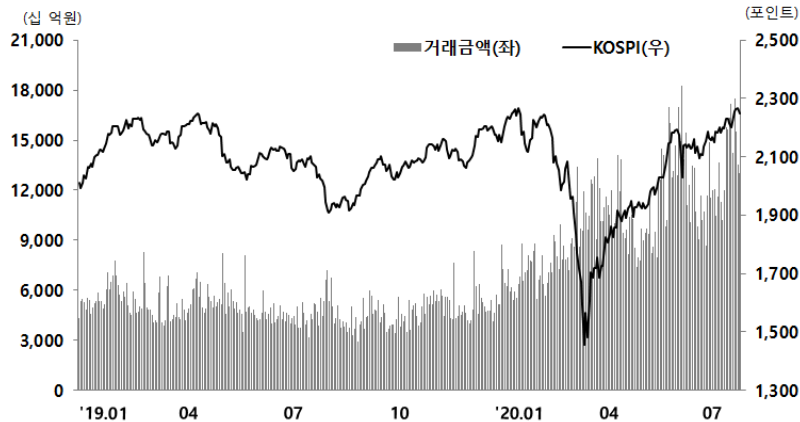
주: 2020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7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주가

- 코스피(KOSPI) 지수는 4월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2,200선까지 반등함
- 3월 1,400선까지 하락하였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감

- 한편, 6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01.48포인트 (15일) 급락하였으나,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로 하루 만에 반등함
- 7월 코스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200선을 회복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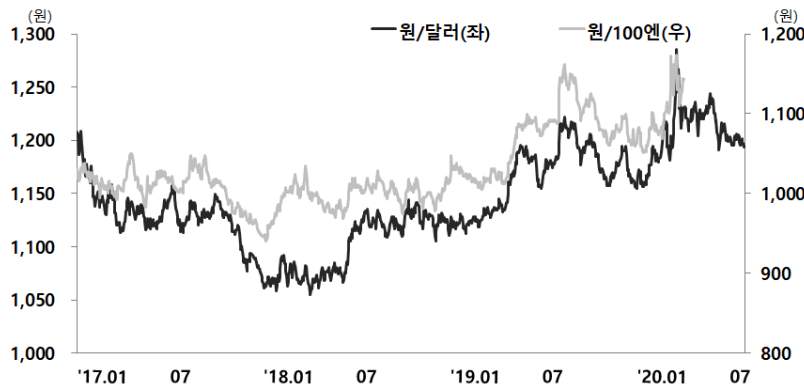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위험회피심리 고조에 따른 달러 확보 수요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등의 영향으로 1,190원 후반으로 하락함
 -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재점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5월 말 원/달러 환율은 1,239원까지 상승함
 - 이후에는 고용지표 개선²³⁾ 등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연장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하회함
- 원/엔 환율은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100엔 당 1,153원(5월 25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로 소폭 하락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 고조 및 유로존, 신흥국 리스크 부각 등 자산시장 변동성 재확대²⁴⁾에 대한 우려는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짐

23)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480만 개가 증가해 두 달 연속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2.2%p 하락한 11.1%를 기록함

24)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5. 8), 「외환: 계속되는 달러 강세의 불편함」,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0호

- 6월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일본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엔화는 1,110원 아래로 하락함
 - 일본의 2020년 2/4분기 단칸지수(대기업 제조업 경기판단지수)는 -34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²⁵⁾
- 이후에는 엔화의 강세요인과 약세요인이 혼재하며 1,1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함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3/4분기에 원/달러와 달러/유로 환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유럽 경기 회복세 지연, 미국 대선 대기 등이 달러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0. 2Q	3Q	'20. 1Q	2Q	'20. 1Q	2Q
Morgan Stanley	1,203	1,215	108	109	1.12	1.15
Mizuho Bank		1,210		-		1.12
SCB Securities		1,200		-		1.15
Wells Fargo		1,190		107		1.16
MUFG		1,190		106		1.12

주: 2020년 3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7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25) 연합뉴스포맷(2020. 7. 1), “日 2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업황지수 -34...예상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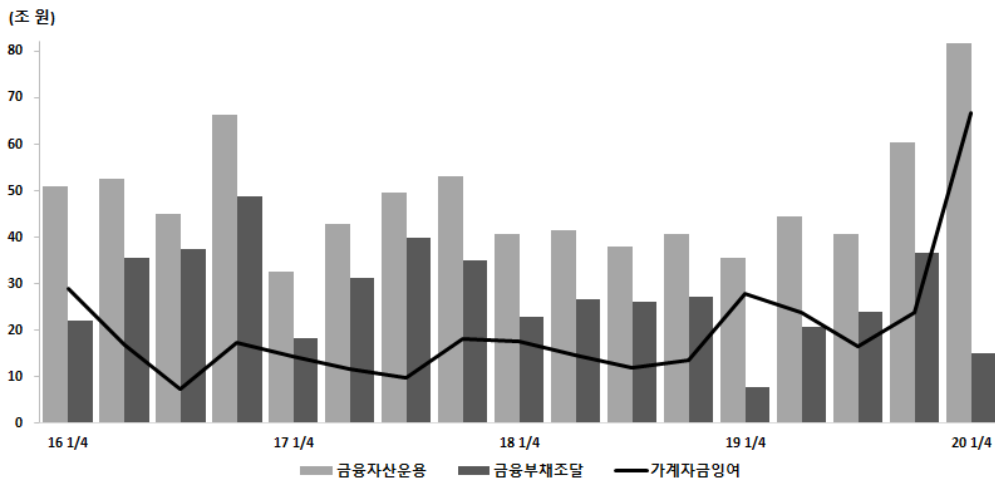
3. 자금흐름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²⁶⁾의 자금잉여²⁷⁾는 분기를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81.8조 원, 금융부채 조달은 15.0조 원으로 66.8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가계자금 잉여 증가에 기여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1/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국내주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거래는 축소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 1/4분기 13.3%를 기록하면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26)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7)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30.7	72.0	(39.7)	-17.6	-7.9	2.1	2.0	0.1	181.4
2020 1/4	66.0	10.9	(13.3)	-3.0	9.9	1.9	-6.7	2.8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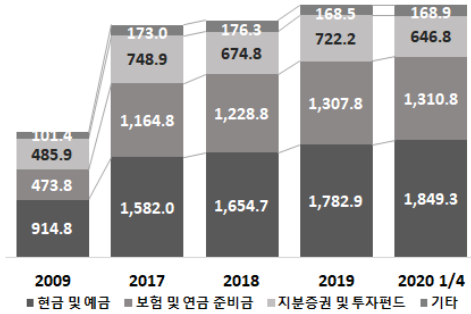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0년 1/4분기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9년에 비해 0.2%p 증가함

○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상승하여 2020년 1/4분기 46.5%를 기록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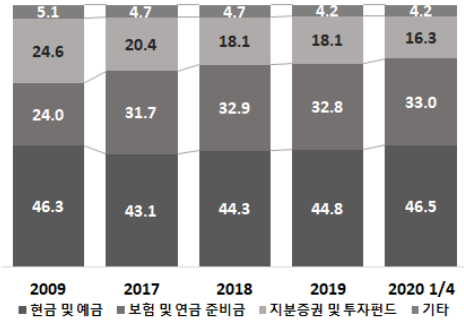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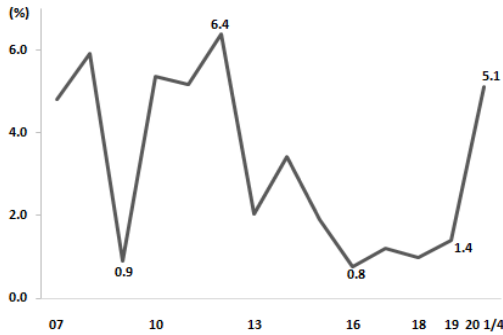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20년 1/4분기 5.1%를 기록함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4/4분기 12.0%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1%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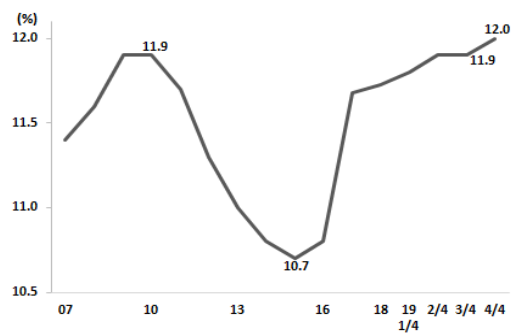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2020년 1/4분기 증가율은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통계 개편(고시 제2020-111호)에 따라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제외)'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9〉 DSR



자료: BIS

4. 규제·제도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2020. 6. 29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IFRS 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2020. 6. 30)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2020. 6. 29 금융감독원)

-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보험가입 거절,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지급 거절 등을 금지하는 약관을 개선하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임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2020. 6. 24 금융위원회)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2019. 10. 22) 중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6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 6. 23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①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②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2017년 5월, 2019년 6월). 6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재보험업(Reinsurance) 제도개편방향 발표(2020. 6. 11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재보험업’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여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할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함

■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2020. 6. 4 금융감독원)

-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며,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함.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 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따라서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함

■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2020. 6. 3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하여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함. 이에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고, ②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함

■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5. 27 금융감독원)

-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 책임성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를 보험 계약 시 및 사고 발생 시에 따라 구분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민원 분쟁을 예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함

■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5. 1 금융위원회)

- 4월 29일,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조정함(일반 계정 30%,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 →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임